

## 만 4세 유아의 실외 모래놀이 양상과 참여 태도에 관한 연구

권영선<sup>1</sup>, 김순환<sup>2</sup>

<sup>1</sup>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 <sup>2</sup>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 A Study on the Aspects and the Attitudes of Children Aged 4 in Outdoor Sand Play

Young-Sun Kwon<sup>1</sup> and Soon-Hwna Kim<sup>2</sup>

<sup>1</sup>Master's Degre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up>2</sup>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up>2</sup>Corresponding author: [ksh6220@ewha.ac.kr](mailto:ksh6220@ewha.ac.kr)

Received May 25, 2021; Revised June 21, 2021; Accepted July 20, 2021

### ABSTRACT

본 연구는 만 4세 바다반 유아의 실외 모래놀이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실외 모래놀이 양상과 놀이 참여 태도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사립 유치원의 만 4세 바다반 유아 27명을 대상으로 모래놀이 관찰 및 영상촬영, 유아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만 4세 바다반 유아들의 실외 모래놀이는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놀이, 자연물과 함께하는 놀이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는 실외 모래놀이에 대한 높은 참여율을 의미하며, 특히 남아들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모래놀이가 진행 되는 가운데, 한 개의 주제가 반복 심화되어 나타나기도 함을 의미한다. 게다가 실외 모래놀이는 자연물과 함께 이루어 질 때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내는 등 더욱더 풍성한 놀이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둘째, 만 4세 바다반 유아들의 실외 모래놀이에 참여하는 태도는 크게 적극적인 참여 태도, 제한적이거나 소극적인 참여 태도, 방관자적 참여 및 비참여 태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만 4세 유아의 실외 모래놀이 양상과 놀이에 참여하는 태도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실외 모래놀이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실외 모래놀이가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observe the outdoor sand play by children aged 4 at the Bada Class so understand aspects of the play and their participation attitudes towards the play. The research subjects consisted of 27 children aged 4 who were attending the Bada Class, a private kindergarten, which is located at Seoul. In order to collect data for research, the study observed children's outdoor sand play with video recording, conducted interviews with children.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outdoor sand play by the Bada Class children aged 4 had an aspect of sand play which always continues,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and play with natural objects. It means that they showed a high level of participation in the outdoor sand play enough to enjoy it about every other day, in particular, boys had a higher level of participation. Furthermore, it also means play at a sand playground is done with various themes but sometimes a single theme is repeated and intensified. Besides, outdoor sand play created a new role when they played with natural objects, leading to more active play. Second, as for the attitudes 4-year-old Bada Class children showed when they participated in the outdoor sand play, they had an active participation attitude, limited or passive attitude, onlooking or non-participatory attitud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extended the understanding of the outdoor sand play and reconfirmed its importance via specific case analysis on aspects of the outdoor sand play by 4-year-old children at the Bada Class and their participation attitudes.

**Keywords:** Early childhood education, Outdoor sand play, Aspects of the sand play, Attitudes of the sand play



## 1. 서론

현대사회는 사물인터넷(IoT),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지능정보 사회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면서 개인뿐 아니라 경제와 기업,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교육 분야에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다. 미래학자 Daniel<sup>[1]</sup>은 미래 사회 인재의 6가지 조건으로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의미 그리고 놀이를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놀이성이야말로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교육부<sup>[2]</sup>는 최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미래사회 핵심 역량을 반영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확정·발표하며 놀이의 중요성과 함께 놀이가 지닌 교육적 가치를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다.

유아에게 놀이란 삶 그 자체이다.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경험하며 배우고 성장해 나간다<sup>[3]</sup>. 유아들에게 놀이는 즐거움이자 최고의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를 설레게 하는 한 마디 “친구야, 놀자!””, “우리 아이 놀이터, 성장하는 배움터”, “놀이를 웃고! 놀이를 꿈꾸고! 놀이를 자란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UCC 및 표어 공모전에서 수상한 이 표어들은 유아기 놀이의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sup>[2]</sup>. 즉, 유아의 놀이는 즐거움이나 욕구 해소의 측면뿐만 아니라 발달과 학습 원리이자 교육적 수단의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sup>[4]</sup>.

유아들의 놀이는 놀이가 이루어지는 환경에 따라 크게 실내놀이와 실외놀이로 구분된다. 실외놀이 중 하나인 모래놀이는 만 3~5세 유아들이 선호하는 놀이이다<sup>[5,6]</sup>. 모래는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개방적인 놀이재료로 그 쓰임이 다양하고, 교육적 효과 또한 무한하다. 모래는 비정형의 매체(loose parts)이며 특별하게 정해진 놀이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놀잇감에 비해 구성놀이와 상상놀이를 자극하며<sup>[7]</sup>, 유아 스스로 놀이의 주체가 되어 놀이하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를 유발시킨다<sup>[8]</sup>. 유아들은 모래를 쌓고, 파고, 틀로 찍어보는 등의 다양한 감각경험을 통해 수학적 개념을 형성하기도 하고, 모래의 물리적 속성을 경험하며 과학적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다. 또한 모래놀이를 하면서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어휘력이 발달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함으로써 사회성 발달이 촉진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적 놀이재료인 모래를 마음껏 만지며 놀이하는 가운데 유아들은 불안이나 긴장감, 공격적 성향이 해소되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며 정서지능의 향상을 돕는다. 이와 더불어, 모래 놀이는 유아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여 다양한 탐색활동으로 나타나며 이는 문제해결력과 창의적 사고의 발달을 야기한다<sup>[9]</sup>. 이처럼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시키는 의미있는 활동인 모래놀이가 교육현장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놀이에 참여하는 유아들의 모습에서는 다양한 태도가 나타난다. 태도(attitude)란 ‘어떤 일이나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 취하는 입장’을 의미하는 용어이다<sup>[10]</sup>. 이는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한 이전 경험이 긍정적이면 그 일이나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이전 경험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의미이다<sup>[11]</sup>. 모래놀이에서 드러나는 유아의 태도를 살펴보면 이전 모래놀이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거나 소극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유아의 태도는 유아의 인지양식이나 기질, 또래, 부모 등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모래놀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모래놀이에 참여하는 유아의 태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모래놀이가 유아의 발달과 학습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모래놀이 활성화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즉, 모래놀이는 날씨와 계절, 미세먼지, 황사 등과 같은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제약을 받으며<sup>[12,13]</sup>, 모래의 재질로 인한 유아의 위생문제와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 학부모들의 모래놀이와 관련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모래놀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sup>[1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래놀이가 가진 이점으로 인해 모래놀이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모래놀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의 대부분은 모래놀이를 치료적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들<sup>[15-19]</sup>이다. 모래놀이를 교육적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모래놀이에서 유아의 발달적 측면과 놀이행동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다. 먼저, 모래놀이와 유아의 발달적 측면을 살펴본 연구들은 사회성과 관련된 연구들<sup>[20-23]</sup>과 정서적 측면을 살펴본 연구들<sup>[12-14,22,24,25]</sup>, 언어 발달을 살펴본 연구<sup>[26]</sup>이다. 뿐만 아니라, 인지 발달적 측면에서는 수학 및 과학적 사고와 관련된 연구들<sup>[7,27-30]</sup>과 창의성을 살펴본 연구들<sup>[13,21,25,31-33]</sup>이 대부분이다. 다음으로, 모래놀이에서의 놀이행동을 살펴본 연구들은 자연물이나 소품, 물의 제공 등 복합성 수준과 관련된 연구들<sup>[34-38]</sup>과 연령과 성에 따른 놀이행동을 살펴본 연구들<sup>[39,40]</sup>이다. 또한 놀이의 시작과정에 대해 알아본 연구<sup>[41]</sup>도 이에 해당한다. 모래놀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미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래놀이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본 연구<sup>[30,41-43]</sup>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모래놀이에 참여하는 유아의 태도에 대한 연구는 놀이 참여 태도와 관련 있는 개념인 놀이성을 살펴본 연구<sup>[25,45,46]</sup> 이외에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4세 바다반 유아들의 실외 모래놀이 관찰을 통하여 만 4세 바다반 유아들의 모래놀이 양상과 모래놀이에 참여하는 유아들의 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만 4세 유아들의 모래놀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만 4세 바다반 유아들의 실외 모래놀이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2. 만 4세 바다반 유아들의 실외 모래놀이 참여 태도는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 대상<sup>1)</sup> 및 연구 현장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학교법인 자연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4세 바다반 유아 2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바다반 유아들은 남아 15명, 여아 12명이며, 특별히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유아는 없다. 평균 월령은 관찰 첫날을 기준으로 62.89개월이다. 하루 일과는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오후 2시에 마무리되며, 일반적으로 등원 및 놀이, 오전간식-모이기-놀이-정리 및 평가-활동-점심-바깥 놀이-평가-하원 순으로 이루어진다. 하루 일과 중 바깥 놀이를 포함한 놀이 시간은 2시간 정도로 운영된다.

자연유치원의 실외 모래놀이터는 유치원 앞마당에 위치해 있고, 직사각형 형태이며 그늘을 조성해주는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다. 모래놀이터 주변에는 오래된 은행나무와 목련 등이 심겨져 있으며, 놀이터 안쪽에는 긴 삽과 짧은 삽, 갈퀴, 손가락, 흙손, 포크레인, 트럭, 바구니, 물조리개, 물레방아, 깔대기, 체, 다양한 모양의 찍기 틀 등 파거나 이동하거나 담을 수 있고 찍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도구함에 비치되어 있다. 모래놀이 도구함은 뚜껑이 있어 모래놀이가 시작되면 도구함을 열어두고 모래놀이가 마무리 되면 닫아두어 모래놀이 도구를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앞마당 화단 쪽으로는 수도가 있어 모래놀이 시 호스를 연결하여 이용하거나, 바구니, 그릇 등 담을 수 있는 용기에 물을 받아와서 모래놀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2.2 연구 절차

우선, 유아주도적인 실외 모래놀이를 살펴보고, 실외 모래놀이의 양상과 놀이에 참여하는 유아들의 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목적표집을 통해 연구 기관 및 대상을 선정하였다. 유아의 실외 모래놀이를 관찰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바깥 놀이 시간을 제공하고 유아들의 자발적인 모래놀이를 격려하는 인적·물적 환경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 필요했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연구 기관 및 대상을 섭외해 보던 중 연구자가 이전에 근무했던 자연유치원 원장의 허락을 받아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실외놀이 중 모래놀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연령인 만 4세 유아<sup>[5,6]</sup>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만 4세

1) 본 연구대상 유치원명과 학급명, 유아의 이름은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모두 가명으로 기재하였다.

유아는 다른 연령에 비해 연령 특성 상 발달 수준이 다양하여 모래를 이용한 놀이 시 단순한 기능놀이부터 구성놀이, 가작화 요소가 포함된 놀이, 실험이 포함된 놀이까지 여러 가지 놀이형태가 나타나 모래놀이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자연유치원에는 만 4세반이 2학급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의 학급을 관찰학급으로 정하고, 그 학급의 유아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 4세 유아 2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 및 연구 환경, 참여자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 연구는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급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대상자에게 연구자 및 관찰방법 소개, 모래놀이 관찰 및 촬영, 전사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예비 연구를 하는 동안 본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나타났다. 먼저, 관찰 장소가 개방된 실외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촬영도구를 추가로 사용하여 관찰하기로 계획하였다. 즉, 촬영도구 한 대는 모래놀이의 전체적인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고정하여 설치하고, 나머지 한 대는 1명의 유아나 그 유아가 속한 집단을 근접촬영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유동적으로 사용하여 녹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촬영한 영상 목록과 놀이에 참여한 유아의 명단(체크리스트)을 사전에 확인하여 1명의 유아에게 초점을 두고 촬영해야 할 경우에는 관찰된 횟수가 적은 유아를 촬영하는 것으로 기준을 세웠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9년 9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7주 동안 주 2~4회 이루어졌으며, 동일한 기관과 학급에서 총 17회의 관찰을 실시하였다. 관찰은 바깥 놀이 시간에 실외 모래놀이터로 한정지어 이루어졌으며, 교사 주도적인 계획되거나 의도된 활동이 아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유아 주도적인 놀이만을 관찰하였다. 바깥 놀이 시간은 유동적이었으나 대부분 오후 12시~1시30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3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놀이가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본 연구자는 예비연구를 통해 계획한 대로 비디오 장비 2대를 사용하여 유아들의 모래놀이 양상을 촬영하며 관찰하였다. 영상 촬영은 바깥놀이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작하여 놀이가 끝남을 알리는 신호가 들려 정리하는 때를 종료시점으로 삼았다. 여러 명의 유아가 함께 놀이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놀이 장면이 담길 수 있도록 촬영하되, 놀이에 참여하는 전체유아를 모두 담기 어려울 때에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찰 횟수가 적은 유아를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촬영하여 특정 유아에게 관찰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모래놀이의 참여빈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아별 모래놀이 참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날짜별로 누적하여 체크하도록 하였고, 해당 날의 동영상 자료와 비교하며 누락된 유아가 없도록 하였다. 또한 유아의 모래놀이 경험에 대한 유아의 생각(예: 모래놀이를 하는 이유, 모래놀이를 힘들어 하는 이유)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면담도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유치원의 홈페이지, 바다반 원아 조사서를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 2.3 자료 분석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유아의 모래놀이 참여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와 평균을 산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촬영한 동영상 자료는 날짜 및 유아별로 목록화(예: 날짜-파일번호-관찰유아명)하여 정리하고 최대한 촬영한 날짜 가까운 시간에 전사 작업 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여러 번 반복하여 주의 깊게 읽으면서 의미있는 내용이나 비슷한 유형의 자료들을 토대로 예비범주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때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타 학급 유아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자료 분석을 통해 상위범주로 범주화(예: 실외 모래놀이 양상, 실외 모래놀이 참여 태도) 및 하위범주 목록의 구체화(예: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모래놀이, 자연물과 함께하는 모래놀이, 적극적인 참여 태도, 제한적이거나 소극적인 참여 태도, 방관자적 참여 및 비참여 태도)가 이루어졌다. 이후, 코딩한 범주에 따라 분류되어진 사례를 해석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자 관찰, 유아면담, 문서수집, 비디오 촬영 등 복수의 자료 수집방법을 통한 삼각검증법을 실행하였다. 또한 유아교육 전공 석사과정 졸업자이자 교직경력 28년인 담임교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연구 결과를 수정·보완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만 4세 바다반 유아들의 실외 모래놀이 양상

##### 3.1.1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모래놀이

바깥 놀이의 시작을 알리는 교사의 신호와 함께 남아 4명과 여아 1명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모래놀이터로 곧장 달려가는 모습은 바다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바깥 놀이시간 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모래놀이터를 찾는다. 모래놀이터에 도착한 이들은 먼저 자신에게 필요한 놀이도구를 꺼내 들고, 모래놀이터의 한켠에 자리를 잡고 놀이를 시작한다. 모래를 손으로 만지며 뭉쳐보기도 하고 손가락 사이로 흘러버리기도 하고, 모래성을 쌓거나 길을 만들기도 하며 이들은 모래놀이에 빠져든다. 일단 모래놀이가 시작되면 이들은 옷이나 신발에 모래나 물이 묻는 것도 개의치 않고 놀이에 몰두한다. Table 1은 모래놀이를 관찰하는 동안 놀이에 참여한 빈도를 유아별로 정리한 표이다.

Table 1.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outdoor sand play of the Bada Class children

번호	이름	성별	참여 빈도	번호	이름	성별	참여 빈도	번호	이름	성별	참여빈도
1	김미나	여	2	10	박준빈	남	11	19	이윤후	남	4
2	김주환	남	7	11	박준원	남	14	20	이준후	남	11
3	김재윤	남	10	12	박지현	여	14	21	이지유	여	6
4	김태운	남	16	13	백서운	여	5	22	제승현	여	6
5	나인오	남	9	14	변민서	여	7	23	조서원	남	12
6	남재형	남	7	15	오아준	남	5	24	조수영	여	3
7	도예나	여	2	16	유지오	여	8	25	차민우	남	9
8	박소현	여	2	17	윤하민	남	14	26	최민재	남	11
9	박수인	여	1	18	이예인	여	6	27	한다민	남	13

총 17회의 관찰이 이루어진 가운데, 바다반 유아들은 평균 7.96회 정도로 모래놀이에 참여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평균 10.20회, 여자는 평균 5.17회로 남아가 거의 2배로 자주 모래놀이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별로 살펴보면 태운이가 16회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다음으로 준원과 지현, 하민은 14회, 다민은 13회 참여하였다. 이는 유아의 개인사정으로 결석을 한 날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들은 바깥 놀이 시간에 거의 빠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모래놀이터에서 놀이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원과 준빈, 준후, 민우, 민재, 재윤, 인오가 이들에 한 번 이상은 모래놀이에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즉, 바다반의 바깥놀이 시간에는 모래놀이에 높은 참여율로 반복적으로 놀이하는 남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태운은 손으로 모래를 파서 짧은 길을 만들고, 그 위에 체를 올려둔다. 물을 담아 와서 체 위로 붓는다.]

태운: 여기다 물을 붓는 거야.

[태운이 물을 계속 붓자 물이 길을 따라 흘러 내려간다. 물이 흘러 내려가는 방향을 따라 준원과 하민, 인오가 계속해서 길을 연장한다.]

하민: 김태운, 계속 물을 뿌려.

[태운이 물을 한 병 다 붓은 후 다시 물을 담아 오고, 하민과 인오도 패트병을 들고 물을 담아 온다. 태운, 하민, 인오가 물을 붓고 준원이 긴 삽으로 물길을 이어서 판다. 태운이 길이 시작되는 앞부분에 또 다른 방향의 길을 킁니다.]

태운: (두 손으로 모래를 파서 새로운 방향으로 길을 만들며) 오, 여기에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지.

[태운이 만든 길에도 물이 흘러와 두 갈래의 길이 생긴다.]

태운: (물이 자신이 파는 대로 흘러 들어오자) 우와, 계속 계속 (물이) 가.

태운: (하민이 조금 더 부은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우와, 또 간다 또 간다. (관찰, 2019. 10. 08.)

[태운은 재운, 준원과 함께 터널을 만든 후 터널에 이어서 길을 만든다. 준빈이 마른 모래를 가져와서 만들어진 길 위에 조금 뿌린다.]

태운: 우와. 하얀(마른) 모래다. 그럼 이번엔 하얀 모래길을 만들어 보자. 준빈아 여기 (길을 따라) 뿌려줘.

[준빈이 길 위에 마른 모래를 뿌린다.]

재운: 우리 방지턱도 만들자.

준원: 방지턱?

재운: 덜컹하는 거.

태운: 좋아. 나는 그러면 하얀 모래 더 뿌려야지.

[태운은 마른 모래를 가져와서 길에 뿌린다.]

(중략)

[태운은 ㄷ자 길을 만들다가 재운이가 가운데에 벽을 세우는 것을 본다.]

태운: 그렇지! 여기 두 갈래 길로!

[태운도 재운과 함께 길 가운데에 벽을 세운다. 준빈이 하얀 모래를 만들어진 길 위에 뿌려준다.] (관찰, 2019. 10. 10.)

본 연구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모래놀이터를 찾은 유아는 태운이다. 태운은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모래놀이를 하였는데 진흙 놀이, 동굴 만들기, 터널 만들기, 농사 짓기 놀이, 모래성 쌓기, 숫자 8길 만들기, 호수 만들기, 강 만들기, 화산폭발, 길 만들기, 씨앗·모래·물 수영장 만들기 등 다양한 주제로 놀이를 하였다. 그 중 길 만들기, 수영장 만들기는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났으며, 한 시간 동안 길만 계속적으로 만들다가 놀이를 마무리 하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태운의 길 만들기 놀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놀이가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다. 짧게 길을 터놓고 물을 이용하여 길을 확장해 나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또 다른 길을 터서 물길의 방향을 두 갈래로 나누어 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길을 만든 다음 그 위에 마른 모래를 뿌려서 다른 색의 길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자 길이 아닌 ㄷ자 길을 만들기도 하며, 토래의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도로의 중앙선처럼 가운데 벽을 세우는 길을 만드는 모습도 보였다. 즉, 같은 주제로 놀이가 진행되더라도 놀이 속으로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하게 반복되는 놀이가 아니라 다양한 변화가 존재하는 반복적인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 3.1.2 자연물과 함께하는 모래놀이

자연유치원의 모래놀이터 주변에는 커다란 은행나무들과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풀이 있다. 연구를 위해 관찰이 이루어진 시기가 때마침 가을이어서 은행나무의 열매가 모래놀이터에도 많이 떨어져, 유아들이 모래놀이를 할 때면 수시로 ‘은행열매(씨앗)’가 등장하였다.

[민서와 준빈이 모래를 파고 있다. 민서가 모래를 파다가 은행(씨앗)을 발견하고, 모래 속에 씨를 심는 것처럼 넣는다. 그리고 나서 모래를 덮고, 손으로 툭툭 모래를 두드려준다.]

준빈: 뭐하고 있어?

민서: 나 씨앗 심었어.

준빈: 어디에?

[민서는 준빈에게 씨앗을 심은 장소를 알려준다.]

준빈: (민서가 가리키는 곳에 모래를 더 부어주며) 씨앗아, 잘 자라라. (관찰, 2019. 09. 30.)

민서는 모래를 파다가 은행씨앗을 발견하고, 모래 파기 놀이에서 씨앗 심기 놀이로 놀이를 전환시켰다. 민서가 씨앗을 심는 순서를 기억하며 씨앗을 심자 준비이도 씨앗 심기 놀이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재운과 준후, 태운, 준빈, 인오가 젖은 모래 놀이를 하고 있다. 갑자기 모래놀이터 앞으로 은행나무에서 은행열매가 떨어진다.]

태운: 어, 떨어진다.

준빈: 어! 선생님! 은행이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차양막 사이 공간으로 은행열매가 하나 더 ‘톡’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준후: 나 머리에 맞을 뻔 했어.

재운: 은행이 떨어지는 거 나 봤어.

재운: 하하, 은행이 떨어지니까 재미있다. 하하(웃음).

준빈: 애들아 조심해.

[바람이 조금 불자 은행이 좀 더 많이 차양막에 튕겨 땅으로 떨어진다. 아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차양막 안쪽으로 이동한다.]

준빈: 와아, 이래서 우리 은행 유치원 되는 거 아니야?

태운: (웃으며) 은행이 많이 떨어져서 은행바닥 되는 거 아니야?(웃음)

[준후는 빈 패트병에 모래를 담고 방금 전 떨어진 은행열매를 주워 담는다. 인오가 준후의 행동을 보고 모래가 든 패트병을 가져와 떨어진 은행열매를 주워 담는다.]

(관찰, 2019. 10. 02.)

재운과 준후, 태운과 준빈, 인오가 젖은 모래 놀이를 하다가 은행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관심사가 은행열매로 바뀌었다. 은행열매가 떨어질 때 나는 소리도 듣고, 은행열매도 관찰하며 유아들은 그 상황에 재미를 느낀다. 은행이 많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도 상상해 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준후와 인오는 패트병에 은행열매를 모으는 놀이로 놀이의 전환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민과 준원, 다민, 수연이 모래놀이를 하고 있다. 하민은 모래 속에서 은행열매를 발견하여 통에 담아 모으고, 물을 붓는다.]

수연: (통을 보고) 하민아, 뭐야? 나도 만져도 돼?

하민: 씨앗수영장이야. (통에서 씨앗을 찾아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씨앗 여기 있어.

수연: (통에 손을 가까이 가져가며) 안에 손 넣어 봐도 되니?

하민: 응. 근데...

수연: 씨앗을 찾아서 하나씩 더 넣어줄게.

하민: 그러면 두 개씩 넣어줘.

수연: (통에 손을 넣으며) 알았어.

(관찰, 2019. 10. 18.)

하민은 바구니에 은행열매를 모아 담고, 물을 붓은 후 씨앗수영장이라고 명명하였다. 수연은 하민이 가지고 있는 통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놀이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날 또 다른 유아들도 씨앗 수영장을 만들어 놀이를 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씨앗과 같은 자연물은 유아의 모래놀이에서 좋은 소재가 되었다.

모래놀이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자연물은 바로 ‘물’이다. 바다반 유아들은 물과 함께 하는 모래놀이를 좋아한다. 모래놀이 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날이면 어느 순간 물을 사용하고 있는 유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태운과 지현이 나란히 모래놀이영역으로 걸어온다. 태운은 모래놀이도구인 포크레인과 바구니를 챙겨 앉는다. 지현은 주변을 두리번 거린다. 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표시를 보고, 약간 주춤하더니 모래놀이 도구를 챙겨 태운이 옆에 앉는다.]

태운: (땅을 파면서) 오늘은 뭐할까?

지현: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며 작은 소리로) 오늘은 물이 안 된대.

태운: 안 돼? 흠...

지현: 오늘은 다른 놀이 할까?

태운: 그래.

[태운과 지현은 놀잇감을 다시 상자에 정리하고 모래놀이터를 떠난다.]

(관찰, 2019. 10. 11.)

태운과 지현은 모래놀이를 즐겨하는 유아들이다. 그 중 지현은 특히 물모래놀이를 좋아한다. 모래놀이터에서 물을 사용할 수 없는 날임을 알게 되자, 지현은 모래놀이터를 떠난다. 모래놀이터에서 물을 찾는 유아는 지현이 뿐만이 아니다. 모래놀이를 하는 이유에 대한 바다반 유아들의 면담 결과, ‘모래놀이에 물이 있어서 더 좋다’는 유아들이 많았다.

[오전 놀이시간에 연구자는 전 날 모래놀이터에서 오랜 시간 동안 놀이했던 유아들에게 가서 모래놀이를 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다.]

연구자: 어제도 모래놀이를 제일 길게 한 00네. 선생님이 궁금한 게 있는데 00는 왜 모래놀이를 하니?

태운: 재미있어서요. 모래놀이터에서 성 만들고, 또 (물에 모래를 넣어서 하는) 화산 폭발하는 게 좋아요.

준원: 저는 그냥 모래놀이가 하고 싶었어요. 근데 물이 있을 때가 제일 재미있어요.

서원: 저는 모래놀이에서 긴 통으로 로켓 만들고, 화산폭발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물모래놀이도 좋아도 수영장 만들 수 있으니까.

다민: 모래놀이는 재밌어요. 땅을 파는 게 진짜 재밌어요. 모래성 쌓는 것도요.

지현: 저는 어제 모래놀이에 물이 있어서 좋았어요. 수영장 만들었거든요. 수영장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유아면담, 2019. 11. 14.)

모래놀이를 하는 이유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태운은 성을 만들고, 화산 폭발 놀이를 했을 때 느꼈던 재미를 떠올렸다. 준원은 모래놀이 자체를 하고 싶어서 놀이를 하지만, 특히 물이 있을 때 더 재미를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서원은 로켓과 화산폭발 놀이를 할 수 있어서 모래놀이가 좋다고 하였으며, 수영장을 만들 수 있어서 물·모래놀이도 좋다고 하였다. 다민은 땅을 파고 모래성을 쌓는 놀이를 했을 때 느꼈던 재미를 언급하였으며, 지현은 수영장을 만들 수 있는 물이 있는 모래놀이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모래놀이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준빈이 패트병에 물을 담아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가까이 온다.]

준빈: 물이 왔다!

태운: (성모양 찍기 틀을 준빈이에게 내밀며) 물 줘.

[준빈이 태운에게 물을 따라 준다.]

준후: (빨간 바구니를 내밀며) 나도 물 좀 줘.

준빈: (바구니에 물을 따라 주며) 알았어.

[준빈은 패트병에 물이 거의 없어지자, 다시 패트병에 물을 담아 온다.]

준빈: 물 필요한 사람?

준후: 나!

준빈: (준후에게 물을 준 다음, 다른 친구들을 보며) 물 필요한 사람, 손 들어!

[태운이 손을 들자, 준빈은 태운이 가지고 있는 별모양 찍기틀에 물을 부어준다. 준빈은 패트병에 있던 물을 물조리개에 옮겨 담는다.]

준빈: (또다시 친구들 쪽으로 가까이 가서) 물 필요한 사람?

준후: (손을 들며) 나!

[준빈은 준후에게 물을 부어주고, 그 옆에 놓여진 태운의 노란 바구니에도 물을 부어준다.]

(관찰, 2019. 10. 2.)



준빈은 필요한 친구에게 물을 나눠주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 준빈의 물을 주는 역할놀이는 비단 하루만에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준빈을 시작으로 다른 유아들도 물을 주는 역할을 스스로 맡아 놀이에 참여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러한 역할놀이는 물과 함께하는 모래놀이 일 때만 가능한 놀이라고 할 수 있다.

[지오와 민우, 준후, 윤후가 모여 있다. 서윤이 가까이 다가온다.]

서윤: 너희 뭐하고 있어?

준후: 별 무덤 만들었어.

서윤: 별이 어디 있었는데?

민우: 별이 죽어 있어서 우리가 무덤 만들었어.

연구자: 별은 조심해야 돼.

지오: 별 죽었어요.

윤후: 침 없었어요.

지오: 혹시 이준후한테 쓴 벌인가?

연구자: 준후야, 침에 쓰였어?

준후: (새끼손가락을 보여주며) 여기요. 옛날예요.

연구자: (안도하며) 아...

윤후: 내가 별을 먹을까?

지오: 안돼-. (별 무덤을 툭툭 두드리주며) 누가 죽였을까? 아니면, 별이 누구랑 싸우다가 죽었나? 이긴 별은 가족들한테 가버렸나?

[지오는 다시 한 번 별 무덤을 두 손으로 꺾꾹 눌러준다.]

지오: 선생님, 이거 다른 애들이 만지지 못하게 봐주세요.

(관찰, 2019. 10. 18.)

‘죽은 별’이라는 소재로 놀이가 진행되는 경우는 앞서 살펴본 은행열매(씨앗)나 물과는 달리 흔히 경험할 수 없는 기회였다. 지오와 친구들은 죽은 별을 발견하고 모래로 무덤을 만드는 놀이를 하였다. 놀이 중에 준후가 별에 쓰였던 경험을 회상해 내기도 하고, 별을 먹는다는 상상도 해보고, 별이 죽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하며 놀이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 3.2 만 4세 바다반 유아들의 실외 모래놀이 참여 태도

### 3.2.1 적극적인 참여 태도

실외 모래놀이는 교사의 개입이 크지 않은 놀이 중 하나로, 유아들은 모래놀이터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껏 놀이한다. 유아는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를 계획하고, 필요한 도구를 선택하여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며 놀이한다. 바다반 유아들의 실외 모래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는 다음과 같다.

소현: 우리 성 만들자.

서윤: 모래성을 만들자. 성 만들거면 물이 조금 필요해.

소현: 그럼 나는 물을 떠올게.

수연: 그런데 어디에다가 만들까?

서윤: (모래놀이 코너를 가리키며) 여기에다가 만들면 어때?

수연: (고개를 끄덕인 뒤) 좋아. 그럼 내가 진흙을 만들게.

서윤: 그럼 나는 삽이랑 불도저를 가져와서 모래를 파서 나를게.

(관찰, 2019. 11. 04.)

수연과 소현, 서원은 단짝친구들이다. 셋이 함께 모래놀이터로 와서 모래놀이를 시작한다. 이들은 어느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모래성 쌓기라는 목표를 정하고 각자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필요한 도구를 준비한다. 수연과 서원은 놀이를 스스로 계획하는 적극적인 참여 태도를 보인다. 함께 놀이하는 소현은 판단을 보류하고, 다음 장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윤후는 긴 삽을 돌려가며 모래놀이터의 한 부분을 파고 있다. 구멍이 점점 더 깊어지자 서원이 관심을 보이며 다가온다.]

서원: (구멍을 보며) 이게 뭐야?

윤후: 여기를 열심히 파면 트리케라를 찾을 수 있어. 트리케라를 찾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서원: 트리케라를 찾을 수 있을까?

윤후: (큰 목소리로)응. 이거봐. 내가 땅을 잘 뚫었어. 옛날에 큰 바위가 있었어. 그런데 트리케라가 거기 위에서 살았어. 근데 5마리였어.

[윤후는 계속해서 삽을 돌려가며 구멍을 깊게 파다가 서원이 다민 쪽으로 가버리자, 윤후도 다민과 서원 쪽으로 걸어간다.]

윤후: 애들아, 뭐해?

서원: (모래놀이도구를 양 손에 들고)나는 굽어, 굽어. 아니, 땅파기 굽어야.

다민: (평평하게 만드는 모래놀이도구를 들고) 나는 평평 로봇이야.

윤후: (긴 삽을 들고) 나는 파고파고 로봇이야.

다민: 내가 이렇게 평평하게 해줄게. 그럼 너는 땅을 파고 너는 굽어.

(관찰, 2019. 10. 25.)

윤후는 스스로 자신의 모래놀이 행위에 대하여 창의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하여 서원에게 들려준다. 윤후와 다민, 서원은 자신이 선택한 모래놀이도구의 특징을 활용하여 로봇 역할놀이를 하며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는 태도를 보인다.

[서원이 모래바닥을 깊게 파서 구덩이를 만든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모래를 자기 몸에 덮는다. 모래가 다리를 다 덮자, 팔베개를 하고 있다가 다시 나온다.]

서원: 나 진짜 좋았어. 여기 들어가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서원은 또 다시 모래놀이터를 더 깊게 판다.]

(관찰, 2019. 10. 31.)

서원은 모래 찰흙놀이를 하였다. 모래 구덩이를 파서 그 속에 들어가서 앉고, 모래를 자기 몸에 덮는 등 모래가 옷이나 신발에 묻는 것에 아랑곳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며 즐기는 태도를 보인다.

### 3.2.2 제한적이거나 소극적인 참여 태도

실외 모래놀이터에서 바다반 유아들의 놀이하는 모습을 관찰하다보면, 놀이를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는 하지만 모래놀이터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놀이터 가장자리에서만 놀이하는 유아의 제한적인 참여 태도를 볼 수 있었다. 또한 놀이친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놀이에 참여하는 소극적인 참여 태도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는 유아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나가 모래놀이터 테두리 부분에 아빠다리를 하고 앉는다. 미나는 두 손으로 모래를 모아서 모래성 쌓기를 한다.]

미나: (자신이 쌓은 모래성을 보고) 이거 피라미드 같은데... 난 피라미드가 제일 좋아.

[미나는 두 손으로 모래성을 두드리며 단단하게 만든다. 미나 옆에는 친구들이 놀이하고 두고 간 물고기 모양의 찍기틀이 있다. 미나는 찍기틀을 가지고 와서 손가락으로 젖은 모래를 퍼서 담고 뒤집어 찍어본다.]

미나: 잘 나왔으면 좋겠다.

[미나가 짝은 물고기가 반 정도만 형태를 가지고 찍혀 나오자, 시무룩한 표정으로 다시 모래를 담는다. 모래를 조금 더 꾹꾹 눌러 담고 뒤집어 찍어본다. 이전보다 물고기 형태가 잘 나오자 웃는다. 다시 인어공주 찍기틀에 모래를 담는다. 이번에도 모래를 꾹꾹 눌러 담고 뒤집어 찍는다.]

미나: (옆에 있는 친구에게) 우리 엄마가 모래놀이는 여기(모래놀이터) 안에 들어가지 말래. 집이 너무 더러워진대.

[미나는 계속해서 모래놀이터 테두리 부분에 앉아 놀이를 한다.]

(관찰, 2019. 10. 14.)

미나는 모래놀이터에 스스로 찾아와 놀이를 시작했고, 모래성 만들기과 모양 틀 찍기 등 놀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모래놀이를 하고 나면 집이 더러워지니 모래놀이터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엄마의 말에 영향을 받아 모래놀이터의 가장자리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 앉아서만 놀이를 하는 제한된 참여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수연과 소현, 서윤이 모래놀이터의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는다.]

소현: 우리 성 만들자.

(중략)

소현: 미안한데 나, 샵 하나만 가져다줄래?

[서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샵을 소현에게 주고, 모래놀이 도구함으로 가서 모래주걱을 꺼내온다. 소현은 엉덩이를 바닥에 대지 않고 쪼그리고 앉아서 서윤이 준 샵으로 모래놀이를 한다. 수연이 모래에서 긴 나뭇가지를 찾아 든다.]

수연: 이거 어때? 성에 꽃을까? 아, 그런데 소연아 모래가 조금 묻었어. 아주 조금. 미안.

소현: 응? 어디? (자신의 옷을 살펴보고) 티도 안 나는데? 괜찮아.

수연: 아니 팔에 (묻었어).

소현: 으악. 털어봐.

수연: (진흙이 묻은 양 손을 보여주며) 내 손 이런데?

[소현은 인상을 쓰며 스스로 팔에 묻은 모래를 털어낸다. 세 명은 다시 모래성 쌓기놀이를 한다.]

소현: (자기 두 손을 보고 웃으며) 나 손에 하나도 안 묻었어.

서윤: (두 손을 보며) 나도.

(관찰, 2019. 11. 04.)

소현은 친구들과 함께 모래성 만들기를 계획하고 긴 샵으로 모래를 퍼서 모래성을 쌓는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긴 샵을 가지러 모래놀이터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모래성 쌓기도 모래놀이터의 가장자리에서 쪼그리고 앉아 진행하는 등 모래놀이가 제한적인 놀이장소 안에서만 이루어졌다. 또한 수연이 자신의 옷에 모래를 묻히자 인상을 쓰며 털어내고, 놀이 중간에 자신의 손에 모래가 묻지 않았음을 서윤에게 확인시키는 모습도 나타났다. 즉, 소현은 모래놀이에 참여하지만 자신의 몸이나 옷에 모래가 묻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제한적인 태도로 놀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후가 모래놀이터에 자리를 잡자, 아준도 윤후 옆에 와서 쪼그리고 앉는다. 윤후가 젖은 모래를 뭉쳐 공 모양을 만든다.]

윤후: (아준에게 내밀며) 주먹밥이야, 먹어봐.

아준: (얼굴을 살짝 찌푸린 뒤 입을 벌리며) 아.

[아준은 주먹밥 먹는 척을 한 뒤 윤후의 손목을 잡아 손을 아래로 돌려 공 모양 모래뭉치를 떨어뜨린다. 윤후는 다시 모래뭉치를 만든다.]

윤후: (다시 아준에게 내밀며) 주먹밥이야.

[아준은 한 번 더 먹는 시늉을 한 후 윤후의 손목을 잡고 손을 돌려 공 모양 모래뭉치를 떨어뜨린다.]

(관찰, 2019. 9. 30.)

아준은 윤후와의 놀이를 위해 모래놀이터를 찾았다. 이는 자신의 의지보다 공동놀이자의 선택에 의해 놀이에 참여하는 소극적인 참여 태도라고 할 수 있다.

### 3.2.3 방관자적 참여 및 비참여 태도

바다반 유아들에게 나타난 방관자적 참여 태도와 비참여 태도는 실외 모래놀이에 관심은 있지만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또래의 놀이를 관찰하거나 모래놀이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 모래놀이보다 다른 놀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나타났다. 이러한 태도유형은 위에서 살펴본 제한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는 유아들의 모습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었다.

[준원은 패트병에 물을 담아온다. 물이 담긴 통 속에 모래를 넣은 후, 패트병을 양 손으로 누르자 입구로 모래물이 흘러나온다. 아준이 준원의 놀이행동을 관찰한다.]

아준: (통을 안 눌러도) 그냥 나와야지. (통에 모래를) 엄청 많이 넣으면 (밖으로 모래가) 그냥 나와. 자기 혼자 그냥 (흘리) 나와. 모래를 좀 더 넣어봐. (준원이 모래를 계속해서 붓다보니 물이 조금 밖으로 흐른 것을 보고) 봐봐. 그냥 나오지? (관찰, 2019. 11. 04.)

아준은 준원이 패트병을 눌러 물이 나오게 하는 놀이를 지켜보다가 준원에게 패트병을 누르지 않아도 물이 넘쳐 흘러 나오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아준은 다른 친구의 놀이를 지켜보는 구경꾼으로 참여하지만 놀이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래놀이터에서 만나기 힘들었던 유아들을 찾아 모래놀이에 대한 생각을 듣는다.]

연구자: 바깥놀이 시간에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어떤 놀이니? 모래놀이는 어때? (모래놀이가 힘든 이유가 있니?)

예나: 저는 바깥놀이 시간에 미끄럼틀 타는 게 제일 좋아요. 모래놀이는 그냥 안하고 싶어요.

미나: 저는 미끄럼틀 타는 게 좋아요. 모래놀이 하면 신발에 모래가 들어가는 게 싫어서 잘 안 해요. 바닥이 더러워지잖아요.

소현: 저는 엄마야빠 놀이나 고양이 놀이가 좋아요. 모래놀이는 조금 좋아요. 어쩔 때는 싫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손에 모래가 묻는 게 싫어요. 손을 씻어야 되고 번거롭잖아요.

수인: 저는 모래놀이를 하면 신발에 모래나 물이 묻을 것 같아서 싫어요. 친구들이 물을 너무 많이 뿌리는 것도 싫고, 물이 옷에 묻는 것도 싫어해요. 친구들이 같이 하자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놀이가 더 좋고, 모래놀이가 재미있지는 않아요.

(유아면담, 2019. 11. 14.)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는 동안 수인은 모래놀이에 1번 참여하였고, 예나와 미나, 소현은 2번씩 참여하였다. 이들이 모래놀이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놀이에 대한 흥미가 없거나 자신의 옷이나 몸, 신발에 물이나 흙이 묻는 것을 싫어해서이다. 하지만 친구가 함께 놀이하라고 제안하면 함께 놀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만 4세 바다반 유아들의 실외 모래놀이 관찰을 통하여, 만 4세 유아들의 실외 모래놀이 양상과 실외 모래놀이에 참여하는 유아들의 태도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문제별로 결과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4세 바다반 유아들의 실외 모래놀이는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놀이이며, 자연물과 함께하는 놀이로 나타났다. 먼저, 바다반 유아들은 총 17회 중 평균 7.96회 정도로, 이들에 한 번 꼴로 모래놀이에 참여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특히 남아들은 평균 10.20회 정도의 높은 놀이참여율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바깥놀이 시간이 되면 대부분의 남아들이 모래놀이터에서 놀이하는 모

습을 관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모래놀이터에서 이루어지는 놀이 주제는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동일한 주제가 반복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동일한 주제가 놀이 속에서 반복되더라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단순하게 반복되기만 하지 않는 것도 알 수 있다. 즉, 매일 모래놀이터로 와서 동일한 주제로 놀이를 하더라도 그 놀이는 다양하고 풍부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만 4세 유아가 선호하는 실외놀이영역이 물·모래놀이 영역이고 특히 만 4세 남아의 물·모래놀이 영역에 대한 선호도가 여아보다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연구<sup>6)</sup>와 일치한다. 이와 함께 만 4세 유아의 실외놀이 선호도의 순서가 모래놀이, 그네, 오르기, 열린 공간 순이라는 연구<sup>5)</sup>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모래놀이장이 유아들에게 다양한 구성물을 만들고 부수는 등 풍부한 놀이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연구<sup>42)</sup>와도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실외 모래놀이가 만 4세 유아들이 선호하는 놀이이며, 모래놀이 안에서 다양한 놀이가 존재함을 이해하여 유아들이 실외 모래놀이를 즐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들의 모래놀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충분한 놀이시간 보장이 필요하겠다. 다음으로, 만 4세 바다반 유아들의 실외 모래놀이는 자연물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유아들의 실외 모래놀이는 은행열매(씨앗)와 물, 죽은 벌 등 자연물과 함께 이루어졌을 때 유아들의 호기심을 보다 더 자극하였다. 게다가 물을 나눠주는 역할과 같이 모래놀이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내는 등 더욱더 활발하게 모래놀이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래놀이에서 소품 및 물이 제공되었을 때 더욱 활발하게 놀이참여가 일어난다는 연구<sup>37)</sup>를 지지한다. 또한, 자연물과 모래놀이와의 만남을 통해 창조에 새로운 창조를 더해가는 중층적 경험을 하게 된다는 연구<sup>35)</sup>와도 맥을 같이 한다. 뿐만 아니라, 모래놀이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역할에 안내자, 탐사자, 전문가, 연구자, 연기자 뿐 아니라 조력자도 나타난다는 연구<sup>44)</sup>와도 의미가 통한다. 따라서 모래놀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의 제공뿐만 아니라 열매, 나뭇가지 등 다양한 자연물을 함께 제공하는 놀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둘째, 만 4세 바다반 유아들의 실외 모래놀이 참여 태도는 크게 적극적, 제한적이거나 소극적, 방관자적 및 비참여 태도로 나타났다. 먼저, 적극적인 참여 태도는 유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를 계획하고, 필요한 도구를 선택하여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며 놀이하는 태도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몸이나 옷, 신발 등에 모래가 묻거나 지저분해지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놀이를 즐기는 적극적인 태도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래놀이에서 유아들은 창조, 놀이, 자유를 경험한다는 연구<sup>44)</sup>와 유사하다. 또한 모래놀이터가 유아들에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놀이하며 유아의 흥미에 따라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만드는 등의 자유를 누리는 놀이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연구<sup>42)</sup>와도 맥을 같이 한다. 뿐만 아니라, 모래와 친숙해 지고나면 혹시 젖은 모래나 진흙이 옷에 묻더라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며, 마음껏 손을 더럽히며 놀이한다는 연구<sup>43)</sup>와도 의미가 통한다. 따라서 유아들이 실외 모래놀이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제한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는 모래놀이터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가장자리에서만 놀이를 하는 등 장소의 제약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래놀이의 가장 중심 재료인 모래가 손에 묻거나 옷, 신발 등에 묻지 않게 놀이를 하는 등의 제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모습들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모래놀이에 대한 인식 및 유아의 성격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집이 더러워진다고 한 말에 영향을 받거나 자신의 옷과 손에 무언가가 묻는 것을 싫어하는 깔끔한 성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놀이신념이 유아의 놀이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sup>47)</sup>와도 맥을 같이 한다. 한편, 놀이친구의 선택에 의해 할 수 없이 모래놀이를 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극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 상호간에 형성된 친밀함에 따라 모래놀이의 참여여부가 결정된다는 연구<sup>41)</sup>와 의견을 같이 한다. 따라서 유아들의 실외 모래놀이에 제한적이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아들은 유아의 성격이나 부모의 모래놀이에 대한 인식과 놀이친구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는 모래놀이와 관련된 부모의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부모교육을 계획하여 운영하거나, 유아들의 실외 모래놀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놀이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아가 놀이친구의 선택을 수용할 때 겪는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고 적절한 지원을 해 줄 필요도 있겠다. 방관자적 참여나 비참여적인 태도는 바깥놀이 시간 동안 놀이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친구의 놀이를

지켜보며 질문, 제안만 하거나, 모래놀이터를 거의 찾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면담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아의 놀이에 대한 선호도, 모래놀이터에서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모래놀이 약속과 관련된 이야기나누기를 통해 모래놀이 시 안전성을 확보해 주거나, 모래놀이터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신체활동을 계획하여 긍정적인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래놀이에 대한 유아의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계획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만 4세 바다반 유아들의 실외 모래놀이에 참여하는 태도에 대해 살펴본 것은 유아들의 실외 모래놀이에 참여하는 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실외 모래놀이의 활성화를 위한 교사의 교육적 지원 및 격려의 필요성을 재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유아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실외 모래놀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바깥 놀이 중 모래놀이는 단순하게 모래를 파거나 쌓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놀이라고 생각하거나 모래놀이 영역 자체가 교사의 관심 밖 공간인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래놀이터에서 유아들은 자신의 촉각적 감각놀이에 집중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창출해 내기도 하며,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모래놀이를 즐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배움이 일어난다. 따라서 교사는 소중한 배움터인 모래놀이 영역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모래놀이를 위한 충분한 시간제공을 보장해주거나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 유아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등 유아들의 실외 모래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 및 격려를 해야 한다. 둘째, 모래놀이영역에 물과 자연물을 제공하는 등 환경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유아들의 면담에서도 나타났듯이 유아들은 물이 제공되는 것을 좋아하고, 물이 제공되었을 때 더욱더 풍부한 놀이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은행열매를 찾아 씨앗 심기 놀이나 씨앗 수영장 만들기를 한 것이나, 죽은 벌을 발견하고 무덤 만들기를 한 것처럼 자연물의 제공으로 인해 새로운 놀이로의 전환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자연물의 제공은 모래놀이가 더욱 확장될 수 있는 밑거름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교사는 실외 모래놀이영역에 물을 비치해 두거나 가능하면 수도를 연결해 두어 유아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씨앗, 열매, 나뭇잎, 나뭇가지 등 다양한 자연물을 함께 제공하는 놀이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연유치원 만 4세 바다반 유아들로 대상을 한정지어 살펴본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을 일반화하기에는 자료의 내용이나 양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따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연구대상의 지역 및 연령을 달리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2학기 초반 7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연구이다. 모래놀이는 날씨 및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실외놀이이다. 이에 따라, 자연의 변화에 따라 놀이 주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계절을 달리하거나 좀 더 장기간에 걸쳐 관찰 및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 Acknowledgement

※ 이 논문은 권영선의 2019학년도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References

1. H. P. Daniel, “새로운 미래가 온다: 미래 인재의 6가지 조건(김명철 역)”, 한국경제신문사, 2012(원서 2011 출판).
2. <https://www.moe.go.kr/boardCnts/list.do?m=02&s=moe&searchType=S&page=1&boardID=294&prntBoardID=0&prntBoardSeq=0&prntLev=0>
3. J. E. Johnson, J. F. Christie, and F. Wardle, “Play, Development and Early Education”, Boston, MA: Allyn and Bacon, 2006.

4. 김태영, 엄정애, “실내 자유놀이가 시간에 나타나는 유치원 교사의 놀이 개입”, *교육과학연구*, 제50권 제3호, pp.1-32, 2019.
5. 이화정, “실외놀이시설에 대한 유아의 선호도와 놀이시설별 유아의 놀이형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6. 장한빛, “유치원에서 유아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실외놀이영역 선호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7. 조희순, “유아의 모래놀이에 관한 일연구: 모래상자와 블럭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8. 이선애, 김종석, 이채호, “유아와 바깥 놀이: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2009.
9. 이숙재, “(개정판) 영유아 놀이 활동”, 서울: 창지사, 2011.
10.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11. J. H. Block, “Mastery Learning: Theory and Practice”,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1.
12. 천은영, “모래놀이 활동에서 교사개입과 보조 자료 활용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13. 최선미, “실내 모래놀이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14. 조형숙, 주현정, “유아교사가 모래놀이 교육경험을 통해 인식한 교육적 의미와 요구”, *유아교육학논집*, 제22권 제3호, pp.5-36, 2018.
15. 곽희숙, “정서·행동장애 특성을 보이는 유아에 대한 모래상자놀이적용 사례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6. 소은영, “모래놀이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성향을 지닌 유아의 과잉행동과 수업참여행동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7. 이민희, “보육기관에서의 집단모래놀이 프로그램이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8. 이승출, “자아를 탄생시켜가는 유아의 모래 놀이치료 사례 연구”, *모래놀이치료연구*, 제13권 제2호, pp.1-28, 2017.
19. 장미화, “스트레스 대처에 어려움을 보이는 유아의 모래상자놀이 적용 사례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20. 도영숙, “실내 모래놀이가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21. 이연화,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실외모래놀이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22. 천은영, 박화윤, 김오순, “생활주제에 따른 실내 모래놀이 활동이 유아의 친 사회적 기술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 교육연구*, 제10권 제1호, pp.69-85, 2005.
23. 한유남, “자연물과 함께하는 모래놀이가 유아의 창의성과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24. 강나리, “실외모래놀이 활동이 유아의 자연친화적 태도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25. 이손연, “동화에 기초한 실내 모래놀이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정서지능,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26. 박향아, 김민정, 안경매, 최선미, “모래 놀이가 유아의 어휘력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제35권 제5호, pp.95-110, 2015.
27. 권유진, “구성주의적 모래상자놀이가 유아의 수학개념 향상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8. 박진옥, “모래놀이, 물놀이가 유아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29. 박화윤, 천은영, 이수정, “자유놀이지간의 교사개입에 의한 모래놀이 활동이 유아의 수학성취 및 과학적 탐구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제40권, pp.71-88, 2005.
30. 이효진, “만 5세 유아의 모래놀이 행동 및 과학개념에 대한 질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31. 이유현, “자연물을 이용한 모래놀이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환경 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32. 이지민, “실외 모래놀이에서 물과 보조자료의 제시유무가 유아의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33. 최보람, “자연친화적 놀잇감을 활용한 모래놀이가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34. 김순정, “모래놀이영역의 복합성 수준에 따른 유아의 상상놀이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35. 권기현, “실외모래놀이에서 자연물과의 만남이 유아에게 주는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36. 김경연, “실외 모래놀이 영역의 복합성 수준에 따른 아동의 놀이행동”,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37. 양현주, “모래놀이에서 소품 및 물의 제공이 유아의 놀이형태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38. 인나영, “물 공급의 유무에 따른 7세 아동의 모래놀이의 내용과 형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39. 박애자, “유아의 연령과 성에 따른 물·모래놀이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제3권 제2호, pp.95-118, 1999.
40. 부은영, “단일연령과 혼합연령집단에 따른 유아의 사회·인지적 놀이 비교: 물·모래놀이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41. 김소영, “만5세 유아들 모래놀이의 집단 구성, 놀잇감 및 주제 선정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42. 봉진영, “유치원 만 4세 유아의 모래놀이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43. 손현미, “만2세 영아의 모래놀이 과정과 경험”,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44. 오현경, “혼합연령 종일반 유아들의 실외모래놀이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45. 박태희, “실내 모래놀이 활동이 만 2세 영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46. 주현정, “유아를 위한 모래놀이 연계 A-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47. 이한별, “부모의 유아 놀이신념에 따른 유아의 놀이성과 의사소통능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